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우승컵 '번쩍' 유소연(21·한화)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브로드무어 골프장에서 열린 US여자오픈 최종일 경기에서 '3개 홀 연장전' 끝에 서희경(25·하이트)을 3타차로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소연 '메이저 퀸'

US여자오픈 연장 17번 홀서 버디 잡고 우승컵

상금 6억·랭킹 19계단 상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강호' 유소연(21·한화)이 올 시즌 세 번째 여자골프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첫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유소연은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브로드무어 골프장 동코스(파71·7천47야드)에서 재개된 대회 4라운드에서 합계 3언더파 281타를 쳐 서희경(25·하이트)과 동타를 이룬 뒤 3개 홀에서 벌인 연장전에서 역전 우승을 거뒀다. 유소연은 이 대회 우승으로 여자골프 세계랭킹 40위에서 19계단 오른 21위가 됐다.

유소연은 연장전 16번 홀(파3)에서 파를 잡은 뒤 17번 홀(파5)과 18번 홀(파4)에서 연속 버디로 2언더파를 기록해 파-보기-파를 적어낸 서희경을 3타차로 따돌렸다.

작년 KLPGA 상금 랭킹 4위를 차지해 이번 대회 출전권을 얻은 유소연은 미국 무대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장식하는 기쁨을 누렸다. 상금은 58만5000달러였다. LPGA 투어 멤버가 아닌 한국선수로서 메이저대회를 제패한 것은 2008년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신지애(23·미래에셋)에 이어 두 번째다.

서희경에 1타 뒤진 채 11일 경기를 재개한 유소연은 16번 홀(파3)과 17번 홀(파5)에서는 타수를 줄이지 못하다가 18번 홀(파4)에서 170야드를 남기고 6번 아이언으로 친 두 번째 샷을 홀 2m에 붙여 버디를 만들어내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역대 여자골프 메이저대회에서 한국 선수끼리 연장전에서 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US여자오픈의 연장전에서는 16~18번 홀까지 3개 홀 연장전을 치러 낮은 타수를 적어낸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다.

유소연은 16번 홀에서 서희경과 파로 비긴 뒤 17번 홀(파5)에서 승기를 잡았다.

유소연이 페어웨이 중앙에서 친 세 번째 샷은 그린 위 깃대 왼쪽 2.5m에 떨어졌다. 침착하게 라인을 살핀 뒤 친 버디퍼트는 홀 속으로 사라졌고 유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반면 서희경은 티샷을 페어웨이 오른쪽 벙커에 빠뜨린 끝에 네 번째 샷 만에 볼을 그린 위에 올렸다. 4m가 넘는 거리에서 친 파 퍼트가 홀을 외면하면서 타수 차는 순식간에 2타로 벌어졌고 서희경은 마지막 홀에서 만회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반면 유소연은 여유 있게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우승을 확정 지었다.

유소연은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경기가 일몰로 중단된 것이 내게는 오히려 다행이었다"며 "좋은 기상 조건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경기를 하게 된 것이 우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미국의 크리스티 커(1언더파 283타)와 안젤라 스탠퍼드(이븐파 284타)는 각각 3위와 4위에 머물렀다. 박인비는 2오버파 286타를 쳐 미야자토 아이(일본)와 함께 공동 6위, 신지애와 양희영(22·KB금융그룹), 김인경(23·하나금융그룹)은 4오버파 288타를 쳐 공동 10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US여자오픈은 한국 선수들의 '텃밭'

박세리·김주연·박인비·지은희·유소연 5명 우승

유소연(21·한화)이 한국 선수로는 다섯 번째로 제패한 US여자오픈은 세계여자골프의 4대 메이저대회 중에서도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남자골프만큼 역사가 길지 않은 여자골프는 타이틀 스폰서에 따라 메이저대회도 바뀌어 작년부터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 US여자오픈, 브리티시여자오픈이 4대 메이저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US여자오픈은 1946년에 시작돼 다른 메이저대회에 비해 역사가 가장 길다. 1998년 대회 때 박세리(34)가 워터 해저드에 맨발로 들어가 샷을 날리는 투혼을 불사르며 메이저 챔피언이 됐기에 한국팬들에게는 더욱 친숙한 메이저대회이기도 하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이 유소연의 우승까지 포함해 수확한 메이저대회 우승컵은 모두 12개다.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2001년 박세리, 2005년 장정(31), 2008년 신지애(23·미래에셋)가 우승했다.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2004년 박지은(32·나이키골프), LPGA 챔피언십(현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에선 1998년과 2002년, 2006년 박세리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나머지 5개의 메이저대회 우승컵은 모두 US여자오픈에서 나온 것이다. 1998년 박세리가 우승컵을 처음 차지한 이후 김주연(2005년), 박인비(2008년), 지은희(2009년)에 이어 유소연이 올해 대회에서 우승해 최근 대회에서는 사실상 한국 선수들이 독무대를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US여자오픈에서 한국선수들이 강세를 띠는 것은 탄탄한 기본기와 정교함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올해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유소연도 국내에서는 장타자에 속하지만 LPGA 투어 무대의 장타자들과 겨루기에는 다소 힘이 달린다.

반면 한국 선수들은 대체로 샷의 정확도가 뛰어난 편이다.

LPGA 투어에서 270야드를 넘나드는 장타력을 갖춘 선수들이 적지 않지만 골프가 단순히 장타자라는 점만으로 정상에 오를 수 없는 스포츠임을 보여주는 것이 US여자오픈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LPGA 메이저대회 한국 선수 우승 일지

1998	박세리	US여자오픈 LPGA챔피언십
2001	박세리	브리티시여자오픈
2002	박세리	LPGA챔피언십
2004	박지은	나비스코챔피언십
2005	김주연	US여자오픈
	장 정	브리티시여자오픈
2008	박인비	US여자오픈
	신지애	브리티시여자오픈
2009	지은희	US여자오픈
2011	유소연	US여자오픈

연합뉴스

'탱크' 최경주 브리티시오픈 출전 … 레어드·펠트와 동반 플레이

'탱크' 최경주(41·SK텔레콤)가 제140회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에서 마틴 레어드(스코틀랜드), 보 반 펠트(미국)와 1, 2라운드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14일(이하 한국시간) 잉글랜드 샌드위치의 로열 세인트 조지스 골프장에서 개막하는 대회 1, 2라운드 조 편성 내용을 12일 발표했다.

최경주는 레어드, 보 반 펠트와 14일 오후 3시47분 경기를 시작한다.

양용은(39·KB금융그룹)은 14일 오후 8시59분 대런 클라크(북아일랜드), 조너선 버드(미국)와 함께 티샷을 날린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세 차례 브리티시오픈을 제패한 어니 엘스(남아공)와 미국의 신예 리키 파울러와 같은 조에 편성됐다. /연합뉴스